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1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6. 2. 24.(수) 14: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3인)

□ 불참위원 : 김재홍 부위원장
고삼석 상임위원 (2인)

제1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윤정 의안·정책관리팀장님,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최윤정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민의례

- 최윤정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6년도 제1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지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님 확인이 끝난 후 다음 회의에서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2016년 시청자미디어재단 기본 운영계획에 관한 건 (2016-10-041)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16년 시청자미디어재단 기본 운영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배중섭 방송기반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2016년 시청자미디어재단 기본 운영계획을 <붙임> 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기본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예산 규모는 시청자 권익보호 활동지원 등 7개 사업에 약 245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1> 시청자미디어교육 확대, <2> 미디어 서비스 기반 확대, <3> 미디어 격차 해소, <4> 공정한 미디어환경 조성, <5> 재단의 역량 강화 등 5개 분야 12개 주요과제가 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재단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무국에서는 재단 본부 및 지역센터 등과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금년도 주요 사업이 국민들에게 보다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수행, 지원하고 금년 추진 과정상에 나타나는 부족한 점은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이석우 이사장님, 2016년 시청자미디어재단 기본운영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이석우입니다. 저희 재단이 지난해 설립이 됐고, 올해 2월 준정부 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서 보고 말씀대로 미디어 리터러시, 전 국민 대상 미디어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제대로 강화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효성 있고 국민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내실 있게 진행해 나가야겠다는 과제를 안고 실행해 나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시청자미디어센터에 오셔서 체험과 교육도 받고 제작도 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본격적으로 강화하

는 한해가 되겠습니다. 미디어교육은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강사를 청년 중심으로 집중 양성하고 배치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인 미디어와 가상현실의 제작장비를 신규로 각 지역센터에 구축해서 국민들의 체험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미디어 발전단계에서 가장 최근의 큰 먹거리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을 좀 더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 미디어 축제를 전국화하고, 시청자미디어축제에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시장 공정화 조치를 방통위에서 계속 확대해 나감에 있어서 저희들 재단의 지원기능을 더 충실히 하고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더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최수영 경영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세부계획은 최수영 경영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수영 실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최수영 시청자미디어재단 경영기획실장

- 2016년 시청자미디어재단 기본 운영계획에 대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재단의 설립근거는 방송법 제90조2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 증진에 두고 있습니다. 주요 연혁으로는 지난해 5월 15일 법인 허가를 받아 재단이 출범되었고, 올해 2월 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조직 규모는 1실 1본부 안에 5부, 7지역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119명입니다. 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7개 사업이 있으며, 예산은 총 244억 6,800만원입니다. 2015년의 주요 성과 평가에 대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단이 미디어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각 지역센터의 센터 체험 및 교육생수가 2014년 34만 4,000명에 비해 지난해에는 43만 8,000명으로 증가하였고, 이용 만족도도 2014년 86.6%에 비해 2015년에는 88.3%로 향상됨으로써 양적·질적 성과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국정과제인 자유학기제 시작과 미디어 거점학교 확대 등 미디어 교육을 실시해 보편적 미디어교육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권 향상입니다.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해 지난해 총 118개 방송사업자에게 4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시·청각 장애인용TV를 저소득층에 보급 확대를 대폭 늘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단에 대한 시청자들의 인식이 크게 향상된 점입니다. 지난해 11월 전국 규모의 ‘시청자미디어축제’를 개최해서 참여도와 홍보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각 지역센터는 지역특성에 걸맞은 그런 맞춤형 행사를 기획·실시해서 지역문화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반면 보완해야 할 점도 있었습니다. 먼저 재단이 출범하면서 미디어전문기관으로서의 외향은 갖추었지만 올해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보다 내실 있는 전문적 업무영역 확보가 필요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 수요가 증가되는 만큼 센터 기능 확대, 시설 장비 고도화, 광역자치단체별 1개 센터 확충 등 대국민 미디어서비스 기반 마련도 시급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소외지역인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으로의 미디어교육 확대,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강사운영시스템 확충 등 보편적 미디어교육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운영방향은 크게 5개 분야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미디어교육 확대는 학교 미디어교육 확대와 사회 미디어교육 강화, 그다음에 미디어 교육시스템 고도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디어 서비스 기반 확대는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확충과 센터 시설·장비 고도화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미디어 격차 해소는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강화와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 지원 확대, 장애인 미디어축제 전국화 등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은 방송광고 모니터링 확대와 방송시장 조사 지원에 집중하겠습니다. 재단의 역량 강화 관련해서는 기관 전문성을 제고시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재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시청자 미디어 교육의 핵심인 학교 미디어교육 확대는 적성개발이 시작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대학까지 연계한 다양한 미디어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확대해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보편적 미디어교육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지난해 2015년 85개교에 불과했던 자유학기제 해당 학교를 올해에는 120개교로 대폭 늘려서 특히 광역권 도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중소도시와 농어촌 학교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초·중·고 학생들의 방송콘텐츠 제작능력을 높여줄 미디어 거점학교도 올해는 52개교로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학연계도 강화해서 대학 내 미디어 관련 신규 교과목을 개설하고 인턴십을 운영해 지역의 미디어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가상현실 등 학점 인증 교과목 개설 대학을 8개교에서 20개교로 확대하고, 체험형 인턴프로그램은 4개 대학 28명에서 8개 60명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3월부터 지역센터별로 자유학기제 등 참여학교 선정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미디어교육 확대를 위해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 미디어교육 강화는 새로운 방송통신기술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는 환경에서 생애단계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미디어교육 확대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아, 아동들의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영상제작을 처음 시작하는 주부, 노인들을 대상으로 제작의 전 과정을 익힐 수 있는 기초교육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마을 공동체 미디어교육도 중점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대적으로 정보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계층에 교육기회를 제공해서 미디어 격차를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여성, 새터민 등이 방송장비를 이용한 촬영 및 편집의 기본 교육을 이수받아 미디어 소통 능력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를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디어교육 강화가 중요한 만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미디어교육 비전과 목표를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월부터 미디어교육 단체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상반기 내 전 국민 기반 미디어교육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후에 공청회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디어교육 시스템 고도화와 교육기반 확충을 위해 미디어교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청년 중심으로 강사를 양성한 후 직업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첫 번째 청년강사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청년강사 양성을 위해 정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대학 연계 학점 인증 교과과정을 거친 인력을 교육현장으로 피드백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양성된 청년인력을 자유학기제 보조강사로 일정기간 기여토록 제도화하고 능력을 갖춘 우수한 청년인력은 강사로 선발해서 강의의 질에 대한 개선을 이루어내고 소규모 미디어센터와 협력하여 청년강사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시스템 체계화입니다. 강사 선발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력관리·강사풀·적정성·강의 등을 평가해서 전반적

인 강사운영 시스템을 체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세부 방안으로는 교육 대상과 수요에 따른 표준형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스마트미디어, 애니메이션, 광고 등 분야에 따른 맞춤형 커리큘럼 교재를 개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디어 교육 강사 워크숍 및 강사 재교육 등을 통한 강사 역량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월부터 청년강사 양성 및 강의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4월 중에 미디어교육 표준형·맞춤형 커리큘럼 개발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디어 서비스 기반 확대 분야입니다.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확충은 센터 미설치지역인 10개 광역자치단체의 미디어 소외 문제 해소를 위한 중장기 센터 확충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최 실장님, 저는 내용을 다 읽어봤습니다. 아마 위원장님이나 김 위원님도 다 보신 것 같은데 키워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수영 시청자미디어재단 경영기획실장

- 알겠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지역센터 확대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전 광역지자체에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두 번째,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서 허브 기능을 극대화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없는 지역은 영상미디어센터, 마을미디어센터 등과 연계해서 미디어교육 임시 거점화로 미디어 소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월 중 미설치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센터 추가 확충 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 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보고하겠습니다. 4월부터는 미설치 지역의 단체장, 방통위원장, 재단 이사장 간담회 추진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고도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 미디어의 발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만큼 1인 제작시설을 확충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며, 현재 지역센터에 1인 콘텐츠 체험·교육·제작·활용이 필요한 만큼 현재 시설과 융합된 시설로 구축해서 이용자 중심의 첨단미디어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장비 고도화도 가장 먼저 설립된 부산 및 광주 센터의 주요 장비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디지털 방송제작 환경에 부합하는 장비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설·장비 구축 시작 및 지역센터별 수요분석부터 착수하겠습니다. 미디어 격차 해소입니다.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강화는 장애인방송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수준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장애인방송 품질 제고와 영세 방송사 지원, 그리고 지역방송 협업 강화를 구체적인 방안으로 잡아서 3월부터 장애인방송 품질 향상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 하반기부터는 센터와 지역방송사 간의 협업을 통한 장애인방송 제작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지원 확대는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보급하고 있는 장애인용TV의 성능을 개선하고, 특히 저소득층에게 보급을 확대해 소득계층 간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지역 협력을 확대해서 전 광역자치단체로 업무협약 체결을 확대하고, 장애인용 TV는 성능개선을 통해서 시·청각장애인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미디어축제 전국화는 현재 부

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축제를 전국화 한다는 데 목적이 있으며, 올해 서울에서 이 축제를 개최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3월 중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공정한 미디어 방송 환경 조성입니다. 이는 광고총량제 도입 등 방송시장이 크게 변화하는 만큼 시청권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수요가 크게 증가되는데 따른 것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서 3월 중 협찬고지 및 공익광고 모니터링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통위의 시장조사 지원을 위해 불공정행위 설문조사, 인터뷰 등 현장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불공정 사례를 제공토록 하고, 유료방송상품 관련 사례 수집을 통해 정례적으로 방통위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의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기관의 전문성 제고는 지금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모든 국민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더 많이 체험하고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재단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내부 전문성 확보와 준정부기관에 지정된 만큼 공공기관의 역할을 정립해서 재단 전반의 업무관리와 엄격한 성과평가, 대국민 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등을 통해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재단이 된다는 각오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재단의 다양한 활동에 보다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국민 친화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모델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도 함께 병행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 내 중장기 경영계획 및 시청자미디어축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우선 각 항목마다 주요 조치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조금 어감이 그래서, '조치'라는 말 대신 '주요 추진 계획' 내지는 '추진일정'인 것 같은데 약간 말을 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 작년에 재단 설립하기 전에 KCA 시절까지 포함해서 그동안 쪽 일상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 아닌 금년에 새롭게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정부 예산 편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 '금년도 운영 계획'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것을 100% 방송기반국과 재단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기존에 쪽 해 오던 연장선상에서 조금 가감하는 그런 사업내용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라도 예산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전혀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 금년 저희 재단 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이 사업 중에서는 미디어교육 예산이 2억여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예산에서는 특별하게 새롭게 사업이 반영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미디어교육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만 단순 강화가 아니고 당초 계획보다도 좀 더 확대했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주로 학교 미디어교육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확대했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새로운 내용 중에서는 미디어 강

사를 앞으로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대해 청년강사를 집중 양성해서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 강사들은 과거 10여년 전부터 쭉 해 오던 강사들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가고 새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서는 청년의 새로운 일자리 준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차원에서 청년강사를 집중 양성하고 배치하겠다는 것이 새로운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덧붙이면 미디어교육의 표준교재를 각 교육별로 금년에 마련을 거의 다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커리큘럼 자체도 새롭게 통일화, 표준화를 금년 중에 다 해내려고 계획을 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1인 미디어와 가상현실 부분, 1인 미디어는 저희 재단과 방송기반국이 이야기해서 지금 방송의 영역이 확대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1인 미디어의 영역과 이용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단에 1인 미디어가 직접 와서 체험도 하고 교육도 받고 활용을 할 수 있는 이 장비와 체험 교육체계를 만든다는 것, 거기에 덧붙여서 얼마 전에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신 가상현실에 대한 제작 체험 교육장비를 구축하는 계획을 금년에 새롭게 추가해서 본격화하려고 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질문드릴 것이 있으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4페이지에 '사람들과 함께하는 재단'에서 대국민 홍보한다는 것과 국제협력을 추진한다는 것이 있는데, 특히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는 것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대개 소모적인 홍보 활동으로 갈 우려가 있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하는 일을 제대로 알리고 많은 국민들이 각 지역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장비를 활용하도록 이런 것이 홍보지, 캠페인을 무조건 많이 한다고 그런 목적 달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홍보 영상물을 만드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제가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주로 홍보한다면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약간 소모적인 경우로 흐를 우려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국제협력이라는 것도 예를 들면 방통위와 경우에 따라서는 미래부 등 정부 간 베이스로 교류, 회의 참가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고위급을 대상으로 우리 재단의 활동상황을 알려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계적으로 저희가 지향해 나갈 방향이 있는데 우선 그렇게 알려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이것이 비용이나 노력을 지나치게 많이 들여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작년에 설립되어서 셋업 해 나가는 단계인데 이름이 시청자미디어재단이지 않습니까? 아까 VR도 말씀하셨지만 방송·통신, 다른 전통적인 미디어 이런 것들 다 뛰어 넘어서서 새로운 의미의 미디어 서비스, 기술, 콘텐츠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스마트 미디어, 이런 '스마트'자를 붙이기도 하는데 저는 이 재단의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스마트 미디어에 걸맞은 그런 활동으로 발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사업이라는 것이 이미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갑자기 스마트 미디어 개념으로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이런 일상적인 사업을 계속 하면서 머릿속에 그 그림을 그려 가면서 한 발자국씩 좀 더 기술적으로나 장비 면에서나 커리큘럼 면에서나 자꾸 스마트 개념으로, 더 발전된 개념으로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재단이 지난 2월에 공식적인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서, 물론 그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 전과 후가 성격상 크게 다를 것은 없지만..., 더더군다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서 생각을 많이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우선 역량 강화에서 첫 번째 '전문성 제고'라고 했는데 최 실장님, 재단이 전문성을 제고하려면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까?

○ 최수영 시청자미디어재단 경영기획실장

- 전문성이라면 미디어교육에 관한 전문성도 있어야겠지만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여러 가지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 확보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단이 그동안 해 온 사업에 대한 업력, 역사 이런 것은 물적인 것도 있고 인적인 것도 있지만 하여튼 총체적으로 시스템적인 것도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단의 직원들이 얼마만큼 전문성이 있느냐? 결국 전문가를 확보하는 문제인데 전문가를 확보하는 문제와 인력양성이 저는 맞닿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어떻게 지금 있는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느냐?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을 미디어와 관련해서 외부 위탁교육을 시킨다, MWC에 파견을 보낸다는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추진해야 하지만 우선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이 재단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로열티를 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평생 전문성을 쌓아가면서 계속 일을 해야겠다는 니즈(Needs), 인센티브를 주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현직 공무원이지만 공공기관에 있으면서 뼈저리게 느낀 부분입니다. 직원이 계속 지금 현재 직장에 대해서 별로 로열티도 없고 애착도 없고 자꾸 기회 있으면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순간 전문성은 엄청나게 훼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재단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 미래에 어떤 형태로든 들어올 직원들을 어떻게 이 직장에 오래도록 일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생각해야하는데 저는 그것이 잘 되어야겠다, 그러지 않고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전문가들이 있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이 정부와 민간기업 사이의, 어떻게 보면 제3의 섹터처럼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약간 정부 쪽에 더 가까운 그런 제도를 가지고 운영되는 기관인데 여기가 민간기업만큼은 안 되더라도 저는 정부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아마 달라지는 것이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경영평가도 있겠지만 나중에 청렴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주 큰 영향을 주는데 엇그저께 정부 부처를 전부 평가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어느 정부부처의 사회적인 인식, 국민들의 인식, 특정 부처를 이야기할 수 없지만 부정 비리가 많다든가 하면 그 인식 때문에 평가가 반드시 나쁜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청렴도 평가라는 것이 제 경험상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청렴도 평가에서 비리, 부정 이런 것이 많고 적음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만 내부 직원의 만족도가 아주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문성과도 관련이 있는데, 공공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역량을 갖추려면 결국에는 내부 직원들과 같이 융합하고 통합하고 그 직원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아야 외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문을 했던 전화 서베이를 하든 직원들이 자기 직장에 대해서 관리자들이 생각하는 것에 비해 훨씬 더 अच्छ게 리얼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사업도 사업이지만 지금 재단이 출범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물론 작년에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직원들이 설립 이후 초기 단계에 여러 가지 갖추어야 할 일들을 하느라고 엄청 고생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년부터는 아주 기본적인 다짐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제대로 된 재단, 제대로 된 공공기관으로서 역량을 갖추려면,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끝으로 어쨌든 간에 제 생각에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 10여년, 정확히 12~13년입니까?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 11년 됐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장 동향에 걸맞은 그런 교육기관 내지는 체험기관이 되려면 하여튼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개념까지 감안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 제가 토를 달 수 없을 정도로 모두 귀중한 말씀이고 바로 해야 할 말씀입니다. 최대한 그리고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우선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이사장님, 또 경영기획실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미비하고 불비한 여건 하에서 의욕적인 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격려를 보냄과 동시에 '과연 그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지도가 나와 있는데 지역미디어센터를 확충해야 한다고 미디어서비스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딱 눈에 띄는 것이 대구 경북 쪽에는 거의 이런 센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봤더니 전국에 6군데가 되어 있고 7군데 울산이 올 10월에 개설하지요? 대구경북 쪽도 수요가 만만치 않을 텐데 계획이 있습니까?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 작년에도 방통위와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기재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야 한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지역 지자체 쪽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함께 추진해 주어야 합니다. 금년에는 여건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시는 작년에 관심을 확실히 가진 것으로 저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와 충분히 그 상황

들을 전달하고 방통위에서 기재부, 지자체 이런 부분들과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대개 지역에서는 이것도 일종의 시청자에 대한 서비스이고 주민들의 복지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할 텐데, 특히 지역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요? 그것이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 예,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국회 미방위에서 대구경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촉구를 했습니다. “6개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빠진 곳이 대구다” 강력하게 촉구했으나, 아마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 쪽에서는 운용예산 그리고 센터 건설예산, 센터를 건설하든지 건물을 매입하든지 하는 그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드니까 예산의 우선순위를 여기에 둘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기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센터가 얼마나 국민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냐는 것에 대한 홍보를 지자체나 또는 국민들에게 그것을 더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그 필요성을 좀 더 느끼지 않겠는가, 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득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장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2005년 부산, 광주 2007년 벌써 10년 넘은 세월이 흘렀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날로그 장비 위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방송장비라는 것이 나날이 엄청 발전을 하는데 지금 다 디지털을 쓰지 아날로그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 고도화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서 새로 생기는 지역은 아무래도 디지털로 바뀔 테고, 그렇게 되면 지역간 소위 미디어 체험에 대한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전체를 따지면 디지털화 보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흑시 숫자가 기억나십니까?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 센터들은 다 디지털 장비가 되어 있고 11년 전, 9년 전에 설립된 부산, 광주는 아직도 아날로그 장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방통위와 기재부가 그 부분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디지털로 교체하는 예산의 절반을 반영해 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나머지 절반을 반영해 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이 다 예산상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총리 비서실장을 지내셨으니까 이사장님이 상당히 밝이 넓으실 것입니다. 방송사에 흑시 노후장비라기보다 교체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싼값에 불하받아서 우선적으로 디지털..., 그래도 맛이라도 봐야 하니까 새 장비는 엄청 비쌉니다. 리스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것도 한 번 섭외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게 열심히 뛰어 주시면 좀 더 낮지 않을까 해서 부탁을 드려봅니다. 지금 인력구조를 여쭙 보고 싶은데 약 100명 가량이지요? 지역에 60명...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 현 정원 105명에 100명 정도이고, 금년에 울산센터에 13명이 들어오고, 또 기타 부서에서 현재 금년 정원은 1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아까 이기주 위원님도 인력의 전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던데 동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인력의 구성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공무원들이 와서 파견 나가 있는 분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 공무원 파견은 없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준정부기관으로 올해 2월에 지정이 됐는데...

○ 최성준 위원장

-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은 재단 직원 100명 중에 안 들어가는 인원입니까?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 일단 정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센터에서는 그 해당 지자체에서 한 3명 정도를 센터에 파견한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대전과 인천센터는 3명, 3명씩 6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계획을 보면 방송광고 모니터링 임무도 수행을 하겠다, 그다음에 불공정행위 시장조사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인력구조상 일단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을 텐데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재단이 작년에 설립됐기 때문에 올해는 아무래도 더 세팅을 하고 정착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느냐?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숨고르기를 해 가면서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VR 가상현실 체험공간을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총리께서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셨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역시 돈입니다. VR 시설장비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데 과연 그런 계획이 올해 예산에도 안 잡혀 있지요?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 저희들이 정부 예산 외에 기부금도 어느 정도 확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

런 것들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렇게 해서 한 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VR(Virtual Reality)이 일반 방송사도 엄두가 안 나서 아주 부분적으로 소화를 하고 있는데 총리께서 말씀하셨다면 예산을 달라고 이야기하지 그랬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 최성준 위원장

- 참고로 아까 어느 분이 잘못 보고하셨는데 가상현실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여기에서 말씀드린 가상현실은 대학에서 학점 인증 교육하는 교과목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가상현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가상현실은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이번에 MWC에서도 가장 큰 화두가 가상현실 VR을 통해 미디어 콘텐츠가 완전히 변화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MWC의 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수준 높은 가상현실을 촬영하고 콘텐츠를 만들려면 많은 비용이 들지만, 또 이번에 특정 회사를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어느 회사가 내놓은 스마트폰과 그다음에 자그맣게 생긴 카메라로 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1인 미디어 비슷하게 자기가 쓸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들이 미디어 교육을 하는데 그래도 시대의 흐름에 앞서 가는 교육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빨리 전문가들을 확보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VR 장비를 과거와는 달리 물론 방송사에서 쓸 정도의 고가 장비는 비싸겠지만 그런 것이 아닌 일반인들이 쉽게 사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장비를 저희가 구입해서 그것을 통해 교육시키고 그것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지원한다면 그 부분은 그렇게 큰 비용 들이지 않고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 저희들이 1차 조사해서 안도 잡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과 거의 100% 일치된 그런 1차 조사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눈에 띄어서 그것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것도 우려스러운 이야기인데 지금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방송미디어 체험학습장 공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잡월드, 또 콘텐츠진흥원 민간 성격의 콘텐츠 재단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송사가 하는 MBC는 키자니아라고 그런 데도 전부 미디어교육을 할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우후죽순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재단에서 하는 것이 차별화가 되어서 중복되지 않고 앞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데와 많이 중복되어 있고 성격이 비슷한데 그야말로 우리 재단만이 소화해낼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방향을 모아서 역량을 집중시키면 아마 다른 데와 차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는 들여다보시면 어떤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태서 한 두어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는 아까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저희가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경비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결국에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시청자미디어센터는 4:6입니까?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 운영비는 6:4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시청자미디어센터가 6이고, 지방자치단체가 4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 운영비는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어떤 곳은 저희가 다 지급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 예, 강원센터는 인건비를 그대로 다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결국에서 6:4에서 4에 해당하는 비용지급을 지방자치단체가 거기도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금전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지원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까 몇몇 센터에서 몇 명씩 근무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인력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오는 인력이 과연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 공무원을 보내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굉장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후자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한 순간에 다 바꾼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겠지만 올해는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파견을 줄이든가 아니면 파견을 계속 유지하면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저희가 파견을 받아야지, 저희 업무계획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전문성이 강화되지, 그분들이 와서 1, 2년 그냥 거쳐 가는 식으로 왔다가 가면 그것은 저희 전문성 강화에, 또 저희 업무추진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금전으로 받아서 훌륭한 강사들을 더 채용해서 쓰는, 더 훌륭한 직원들을 채용해서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해결 못 하시겠지만 올해는 점진적으로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보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요새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100% 무료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 저기 가서 설명하면 설명을 듣는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렇게 좋은 기관이 있었는데 왜 저희는 몰랐을까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홍보라는 것이 참 노력한 만큼 효과가 나기 어렵습니다. 홍보 이야기하다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혹시 가능하다면 반상회 같은 데에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물론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없는 광역시가 있어서 거기는 빼고, 있는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 부록으로 저희 시청자미디어센터가 하는 역할과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알리면..., 걱정되는 것은 그것을 보고 너무 많이 오시면 시청자미디어센터가 감당이 안 될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 일반 서민들에게 이런 정보가 다 전달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강구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비용도 별로 안 들이면서, 아마 행자부에서 아무 것이나 하계는 하지 않겠지만 지금과 같이 스마트 미디어교육이 중요시되는 이때에 그런 제안을 하면 행자부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 것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이 기본계획을 좀 더 충실하게 보장하는 의미에서 주신 의견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2016-10-042)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고드리는 안건은 작년에 있었던 광고총량제 도입, 가상광고 확대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협찬고지에 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찬고지 제도개선 논의 시, 특히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시사·보도프로그램에 광고효과를 주는 협찬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의가 제기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에 대한 규제근거를 방송법령에 신설해서 협찬주에 대해 투명성을 높여가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법령의 하위에 해당되는 규칙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의 상세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광고 제도개선 후속 조치로 협찬고지 규제 완화를 위한 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규칙 제명 변경입니다.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외에 협찬의 투명성 제고 등 일반원칙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여 규칙 제명을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합니다. 두 번째, 협찬고지 허용

범위 확대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공공기관·공익법인이 '협찬주명' 고지할 경우에 현행 공익성 캠페인에서 공익행사까지 확대 허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방송광고 금지품목과 허용품목을 함께 제공·판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허용품목에 한하여 협찬고지를 허용하되 '협찬주명'이 아닌, '상품명·용역명'만 고지를 허용합니다. 세 번째, 협찬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방송사업자가 협찬을 받아 협찬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 마련 등 투명한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협찬주가 방송프로그램 내용·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편성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합니다. 네 번째, 협찬고지 내용·시간·횟수 등 형식 규제 개선입니다. 협찬고지 내용은 협찬주명·기업표어·상품명·상표 또는 위치 중에서 방송사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고지 가능토록 하고, 고지 1건당 5초 제한시간 폐지, 11회 고지 허용 시간 확대, 예고시 매 시간당 고지 횟수 확대 등 형식 규제 개선합니다. 다음으로는 작년 3월 행정예고한 이후 변경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사용에 관한 것과 협찬 투명성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타이틀 스폰서십 확대는 시청권 보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확대여부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시사·논평·토론프로그램에서는 광고효과를 주는 행위 금지 조항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과 방송심의규정과 중복된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협찬고지 위치 관련입니다. 협찬고지 위치를 현재 화면 하단에서 사업자가 자율 선택하도록 하는 조항은 시청권 보호를 위해 현행처럼 화면 하단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현행 유지토록 합니다. 다음 캠페인협찬 고지 시점 명확화 관련입니다. 방송사업자가 캠페인 협찬을 받은 경우에 방송프로그램 내에서도 협찬고지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으므로, 시청권 보호를 위해 방송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만 협찬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명의 장소 협찬주 고지 허용입니다. 방송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소 협찬을 받는 경우 방송프로그램 내 해당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명'의 협찬주명 고지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주제작사의 형식 규제 적용 관련입니다.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사항이나 방송법상 외주제작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직접적인 형식 규제 대상에 추가하지 않고 현행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관보 게재는 언제 되는 것입니까?

○ **배종섭 방송기반국장**

- 규개위 설명을 다 마쳐서 특별한 규개위 절차는 없고 오늘 의결하고 나면 바로 관보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오늘 의결이 되면 언제 관보 게재합니까? 행자부….
- 이 헌 방송광고정책과장
 - 일주일 안에 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아주 잘 숙지해야 할 사람들이 대략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 배종섭 방송기반국장
 -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 이 헌 방송광고정책과장
 - PP들까지 몇 백 명 될 것 같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몇 백 명 더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광고제도 관련해서 위반이 있어 왔는데, 특히 그중에 협찬고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대상사업자의 담당 PD 등 직원들은 대부분의 이야기가 그 규정을 몰랐든가 그 내용을 잘못 이해했다든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도 개정이 되고, 또 행정예고한 이후에 내용이 또 바뀌었는데 위에 추진경과를 보니까 작년 8월 26일에 토론회를 했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잘 정리가 되어서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 시행이 제대로 되려면 결국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사람들이 내용을 숙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전문을 짝 뿌려서 관보에 게재하고, 전문이 나가는 것도 아니겠지요? 개정된 부분만 관보에 게재되지요?
- 배종섭 방송기반국장
 -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일단 5월 중에는 개정 내용과 관련된 사업자들을 불러서….
- 이기주 상임위원
 - 5월 중예요?
- 배종섭 방송기반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시행이 언제인데요?

○ 배종섭 방송기반국장

- 그것을 5월 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일찍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빠른 시기에 마련해서...

○ 이기주 상임위원

- 앞에 재단에서도 재단을 홍보한다는데 홍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효과적이면서 저비용으로 해야 홍보인데 우리는 흔히 홍보라고 하면..., 방송기반국에서 홍보한다면 보도자료를 냅니까? 그래서 홍보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할 사람들이 숙지하게 하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 내용이 많으면 한 장으로 정말 딱 키워드만 정리한 것을 제작 현장에 우리가 직접 다 배포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배포한다든지, 제가 보기에 뭔가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도 어렵기도 하고..., 필요하면 해설서로 해서 방심위도 그 내용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고, 실제 현장에서 이것을 제작하는 방송사 직원들도 다 숙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제도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발표만 딱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현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구현되고 실행될 수 있느냐까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배종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보 게재해서 공고하는 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먼저 해당 사업자들에게 충분히 숙지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나중에 정확한 준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배종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3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2016년 제1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5시 40분 폐회 】